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민수기·사사기·에스라·다니엘 —

권성달*

『새한글성경』의 ‘새’라는 관형사는 ‘한글’과 ‘성경’ 둘 모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매체시대의 젊은 독자들을 고려한 『새한글』은 한글 표현에 있어서 신선함과 독특함이 부각될 뿐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 원문의 기록을 최대한 반영한 성경으로 원문과 한글 모두를 살린, 타 번역본들과는 차별성 있는 ‘새로운 성경’이라 자부합니다. 다음 몇몇 구절들을 통해 『새한글』의 특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민수기 13:27

BHS ⁵	וַיִּסְפְּרוּ לוֹ וַיֹּאמְרוּ בְּאֵנוּ אֶל־הָאָרֶץ אֲשֶׁר שְׁלַחְתָּנוּ וְגַם זֶבֶחַ חֶלֶב וְדֹבֶשׁ הוּא וְזֶחֱפְרִיהָ:
『개역개정』	<u>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u>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u>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u>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새번역』	그들은 <u>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u> .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u>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u> 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성서학/히브리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sungdal61@wgst.ac.kr.

- 『공동개정』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 『새한글』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르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1.1. 차이점 관찰

(1) 상반절 앞부분의 히브리어 세 어절(וַיֹּאמְרוּ לוֹ בָּאֵשׁפָּרִי[바에싸프루-로 바옴루])에 대한 한글 번역본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말하여 이르되’, 『새번역』은 ‘설명하였다.’, 『공동개정』은 ‘보고하였다.’, 『새한글』은 ‘이야기했다.’로 모두 다르게 번역하였습니다.

(2) 하반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다섯 어절(וָיָנִים זָבַת הָלֶבֶת וְדָבַשׁ הוּא[베감 자바트 할라브 우드바쉬 히])에 대한 한글 번역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어절인 히브리어 וָיָנִים(베감)에 대해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과연’으로, 『새번역』과 『새한글』은 ‘정말’로 번역하여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וָיָנִים(베감)을 제외한 네 어절(וָיָנִים זָבַת הָלֶבֶת וְדָבַשׁ הוּא[자바트 할라브 우드바쉬 히])은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으로 번역한 반면 『새한글』은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ESV, NET, NKJ, NRS 등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상반절 앞부분의 히브리어 세 어절(וַיֹּאמְרוּ לוֹ בָּאֵשׁפָּרִי[바에싸프루-로 바옴루])을 ‘told’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 중 ZB는 ‘erzählten ihm und sprachen(told him and spoke)’으로, LB는 ‘erzählten ihnen und sprachen(told them and spoke)’으로 비슷하게 번역하였고, BB가 ‘berichteten(reported)’으로 한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2) וָיָנִים(베감)을 제외한 네 어절(וָיָנִים זָבַת הָלֶבֶת וְדָבַשׁ הוּא[자바트 할라브 우드바쉬 히])에 대해서는 ESV, NET, NKJ, NRS 등 대다수 영어 성경이 ‘It flows with milk and honey’로 비슷하게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Wohl fließen dort Milch und Honig’(ZB), ‘Milch und Honig fließen darin’(LB), ‘in dem Milch und Honig fließen’(BB) 등으로 비슷하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개역개정』의 ‘말하여 이르되’라는 번역과 ZB의 ‘erzählten ihm und sprachen(told him and spoke)’, LB의 ‘erzählten ihnen und sprachen(told them and spoke)’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한 두 동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새번역』의 ‘설명하였다.’와 『공동개정』의 ‘보고하였다.’와 BB의 ‘berichteten(reported)’은 히브리어 원문보다는 문맥에 맞춰 적절한 단어로 대치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우리말의 ‘말하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등과 영어의 ‘say, tell, speak, talk’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듯이 그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를 타 언어로 번역했을 때 일대일의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여 번역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한글 번역, 영어 번역, 독일어 번역 등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젓과 꿀’을 하나로 묶어서 ‘호르다’라는 동사에 연결시킨 반면 『새한글』만이 ‘호르다’라는 동사에 ‘젓과 꿀’이 아닌 ‘젓’만 연결시켜 번역합니다. 민수기 13:27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타 번역본들은 모두 ‘젓과 꿀이 흐르는’으로 번역하고, 『새한글』은 ‘젓이 흐르고 꿀이 있는’으로 번역합니다.¹⁾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성경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אמר(아마르)인데 영어에서는 ‘say’, 우리말에서는 ‘말하다’와 가장 잘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다른 동사가 이 동사와 인접하여 사용될 때는 서로 다른 두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령하다’와 함께 사용되면 말을 하는 행위가 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대답하다/응답하다’와 함께 사용되면 어떤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대답이나 응답의 성격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굳이 ‘명령하여 말하다’, ‘대답하여 말하다’와 같이 번역할 필요는 없고, ‘명령하다’, ‘대답하다/응답하다’ 등과 같이 하나로만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אמר(아마르)라는 동사 앞에 צו(싸파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말하다’라는 뜻 외에 ‘수를 세

1) 그러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출 3:8, 17; 13:5; 33:3; 레 20:24; 민 14:8; 16:13, 14; 신 6:3; 11:9; 26:9, 15; 27:3; 31:20; 수 5:6; 렘 11:5; 32:22; 겔 20:6, 15.

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며, 이 동사에서 ‘숫자’라는 뜻을 가진 מִסְפָּר(미쓰파르)라는 명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수를 세듯이 빠짐없이, 꼼꼼히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recount’가 적절한 대응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구절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이 본인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해 빠짐없이, 꼼꼼히 얘기해야 하는 문맥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의 ‘이야기하다’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린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는 맛소라 학자들이 창안한 액센트 부호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는 음악적인(musical) 역할, 강세(stress)의 역할, 통사적(syntactic)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중 성경 해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통사적 역할입니다.²⁾ 통사적 역할은 단어의 끊어 읽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아들’로 끊어 읽기를 하면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이고, ‘거룩한’과 ‘제사장의 아들’로 끊어 읽기를 하면 아들이 거룩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액센트의 통사적 역할을 고려하고 본문을 읽으면 ‘호르다’라는 동사와 연결된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젖’만 해당합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한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존의 타 번역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번역한 이유는 비단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 체계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하는 שָׁבַי(드바쉬)는 일반적인 ‘꿀’이 아닌 신명기 8:8에 등장하는 שָׁבַי(드바쉬)로서 ‘꿀’이 아닌 ‘대추야자나무(『개역개정』의 종려나무)’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8:8에 나오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7가지 농산물 중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키는 문맥에서 שָׁבַי(드바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키는 תָּמָר(타마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꿀’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추야자나무의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검은색 열매가 되고 그 열매에는 상당량의 꿀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꿀’과 ‘호르다’의 조합은 자연스럽지만 ‘대추야자나무’와 ‘호르다’의 조합은 매우 어색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 샘이 있어서 물이 넉넉하면 자라는 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의 성읍’으로 불리는 ‘여리고’나 사해 서쪽에 위치한 ‘엔게디’가 그렇습니다. 엔게디의 다른 이름은 ‘하사손 다말’인데 ‘대추야자나무 가지치기’라는 뜻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2) 성경히브리어 액센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권성달,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3 (2008), 103-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땅'이라는 말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며, 비록 주변은 척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물이 넉넉하여 대추야자나무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사사기 3:22

BHS ⁵	וַיָּבֹא גִמְלֹנָעַב אַחֲרֵי הַלֵּהָב וַיִּסְגֵּר הַחֶלֶב בְּעֵד הַלֵּהָב כִּי לֹא שָׁלַף הַחֶרֶב כִּמְבֹטְנוּ וַיֵּצֵא הַפֶּרֶשׁ שֹׁרֵנָה:
『개역개정』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u>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u>
『새번역』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u>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u>
『공동개정』	그 칼이 자루까지 박혔는데 그가 칼을 배에서 뽑지 않았으므로 <u>기름덩이가 칼에 엉겨 붙었다.</u>
『새한글』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칼날이 기름투성이였다. 에훗이 임금의 배에서 칼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이다. <u>에훗은 하수관으로 빠져나갔다.</u>

2.1. 차이점 관찰

פֶּרֶשׁ(파르쉐돈)에 대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역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은 ‘기름’, 『새번역』은 ‘기름기’, 『공동개정』은 ‘기름덩이’로 번역하여 주어를 모두 ‘기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אָצַץ(야짜)를 『개역개정』은 ‘엉졌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엉겨 붙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찔렀을 때 살이 많이 찢은 에글론의 배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칼과 엉겨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타 번역본들과는 매우 다르게 주어를 ‘기름’이나 ‘기름덩이’가 아닌 ‘에훗’으로 보고 에훗이 한 행동, 즉 하수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ESV는 ‘the dung came out.’으로 번역함으로 주어가 ‘기름’이나 ‘에훗’이 아닌 에글론의 ‘배설물/똥’으로 보아 배설물/똥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NRS는 ESV와 비슷하게 ‘the dirt came out.’으로 번역하였고, NKJ는 ‘his entrails came out.’으로 번역하여 약간 다른 관점을 취했습니다. 반면 NET는 ‘the fat closed around the blade’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등과 비슷한 관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LB가 ‘das Fett die Schneide umschloss’로 번역하여 한글 성경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 반면, ZB(er ging hinaus durch ein Schlupfloch[he went out through a loophole.])와 BB(entkam durch ein Schlupfloch[escaped through a loophole.])의 번역을 보면 BB가 ‘나가다’가 아닌 ‘탈출/도망하다’로 의역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ZB와 BB 모두 ‘에훗’을 주어로 보아 에훗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상황으로 번역하여 『새한글』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칠십인역은 ἐξῆλθεν Ἀωδ τὴν προστάδα로 번역함으로 히브리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주어를 ‘에훗’으로 분명하게 밝히면서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갔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우선 히브리어 동사 **נָסַח**(바예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그것이 나갔다.’입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에훗도 가능하며, 기름이나 배설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 **נָסַח**(야짜)가 ‘영기다, 영겨붙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פַּרְשֵׁדֹן**(파르쉐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פַּרְשֵׁדֹן**(파르쉐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פַּרְשֵׁדֹן**(파르쉐돈) 뒤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접미사가 소위 ‘방향의 헤’이므로 ‘~으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פַּרְשֵׁדֹן**(파르쉐돈)을 기름/기름기/기름덩이, 배설물/똥, 내장 등으로 번역해야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3:22의 마지막 두 어절과 3:23의 앞부분 세 어절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2	הַפְּרִשְׁדִּין		וַיֵּצֵא
3:23	הַמְסִדְרִינָה	אֲדוּר	וַיֵּצֵא

히브리어의 바브 연속법으로 연결된 인접한 두 문장에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고, 마지막 어절은 동일한 구조(정관사+명사+방향의 접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3의 첫 문장은 주어가 ‘에훗’으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에훗이 앞방으로 나갔다.’입니다. 여기서 ‘앞방’은 아래층에 있는 방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훗이 아래층에 있는 방으로 나가려면 어떤 통로를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פְּרִשְׁדִּין(파르쉐돈)은 위층 방에서 아래층 방으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통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 등장하는 유일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오래된 셈어인 아카드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פְּרִשְׁדִּין(파르쉐돈)과 관련된 아카드어 단어는 ‘parashdinum’인데 그 뜻은 ‘구멍’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편집한 ‘올람 하타나흐’ 주석서에서는 פְּרִשְׁדִּין(파르쉐돈)을 ‘출입구’, ‘창문’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구나 창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굳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פְּרִשְׁדִּין(파르쉐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출입구나 창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פְּרִשְׁדִּין(파르쉐돈)과 관련된 아카드어의 의미와 ‘올람 하타나흐’에서 제시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פְּרִשְׁדִּין(파르쉐돈)은 위층 방에서 아래층 방으로 출입이 가능한 어떤 특별한 구멍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을 『새한글』에서는 ‘하수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3. 에스라 7:12

BHS⁵

אֶתְחַשְׁסְתָּ מֶלֶךְ מַלְכִּיא לְעֹזֵרָא כְּהֵנָּה סֵפֶר דִּתָּא דִּי־אַלְהָ
שְׁמַיָּא וְגַמִּיר וְכַעֲנָת:

『개역개정』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스 하느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새번역』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공동개정』	아르탁사샤 황제는 하늘을 내신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비 에스라 사제에게 칙령을 내린다.
『새한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곧 임금 중의 임금이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제 잘 들으시오.

3.1. 차이점 관찰

(1) 아람어 סַפָּר(싸파르)에 대한 번역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학자’로 번역을 하였고, 『공동개정』은 ‘선비’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서기관’으로 번역했습니다.

(2) 아람어 גְּמִיר(그미르)에 대한 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모두 גְּמִיר(그미르)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개역개정』은 ‘완전한 (학자)’로, 『새번역』은 ‘통달한 (학자)’로, 『공동개정』은 ‘가르치는 (선비)’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명사에 대한 수식어가 아닌 별개의 문장으로 보았고, 아람어의 어순과 동일하게 끝에서 두 번째 배치하여 ‘평화가 가득하기를!’로 번역하여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3) 아람어 כְּעֵנֵת(케에네트)에 대한 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모두 כְּעֵנֵת(케에네트)를 번역하지 않았으며, 『새한글』만 ‘이제 잘 들으시오.’라는 문장으로 번역하여 차별성을 보입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아람어 סַפָּר(싸파르)에 대한 번역

ESV, NET, NKJ, NRS 등 대다수 영어 성경이 ‘scribe’로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의 경우 LB는 대다수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Schriftgelehrten (scribe)’으로 번역하였고, ZB와 BB는 ‘율법’과 연결시켜 번역하였는데 ZB는 ‘zuständig(responsible)’로, BB는 ‘der Beauftragte(the representative)’로 번역하였습니다.

(2) 아람어 גְּמִיר(그미르)에 대한 번역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גְּמִיר(그미르)가 명사 סָפָר(싸파르)를 수식해 준 것으로 본 반면 NET(2001)는 ‘the perfect (law)’로 번역하여 ‘율법’을 수식해 준 것으로 본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V와 NRS는 아람어와 동일한 어순으로 끝에서 두 번째에 배치하여 ‘Peace.’로 번역하였습니다. NKJ의 경우 ESV, NRS와 비슷한 관점으로 ‘Perfect peace’로 번역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 중 ZB는 ‘und so weiter(and so on)’로 번역하였습니다. LB는 ‘meinen Gruß!(my greetings!)’으로, BB는 ‘Ich grüße dich!(I greet you!)’로 번역하였습니다.

(3) 아람어 כְּעֵנֵת(케에네트)에 대한 번역

ESV와 NRS는 아람어 어순과 동일하게 문장 끝에 배치하여 ‘And now’로 번역하였고, NKJ는 ‘and so forth’로 번역하였습니다. NET는 כְּעֵנֵת(케에네트)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 성경 중 ZB, LB는 ‘Und nun(and now)’으로 번역하였고, BB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아람어 명사 סָפָר(싸파르)

아람어 명사인 סָפָר(싸파르)는 분사이면서 명사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סֵפֶר(쑤페르)에 대응되는 단어이므로 ‘서기관’이란 뜻을 갖습니다.

(2) 아람어 גְּמִיר(그미르)

גְּמִיר(그미르)는 동사 גָּמַר(그마르)를 원형으로 한 폐알 분사 수동 형태로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에스라 7:12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아닥사스다)왕이 에스라에게 내리는 칙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형식으로 보고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즉, 공문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발신, 수신을 표시한 후 형식적으로 붙이는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빕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인사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3) 아람어 כְּעֵנֵת(케에네트)

כְּעֵנֵת(케에네트)는 공적인 문서에서 실제적인 내용 앞에 붙이는 일종의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목해 주세요!’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도입의 말입니다. 따라서 ‘담화표지’의 역할에 걸맞게 문맥에 맞춰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아람어 명사 סָפָר(싸파르)

이 단어는 ‘학자’나 ‘선비’보다는 ‘서기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람어 원래의 뜻을 반영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아람어 גְּמִיר(그미르)

גְּמִיר(그미르)의 원뜻에 맞추려다 보니 많은 번역본들이 어순에 어울리지 않게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7:12는 왕이 내리는 칙령, 즉 공적인 문서의 도입 부분에 기록된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므로 수신자를 설명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조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의 구조를 살펴봐도 이 단어 앞에서 ‘분리’를 뜻하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을 갖는 에스라 4:17을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גְּמִיר(그미르)가 아닌 שָׁלָם(술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גְּמִיר(그미르)는 גְּמִיר שָׁלָם(술람 그미르, ‘완전한 평화’)의 생략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새한글』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화가 가득하기를!’이라 번역하였습니다.

(3) 아람어 כְּעֵנֶת(케에네트)

כְּעֵנֶת(케에네트)는 공문서 앞에 붙이는 ‘담화표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담화표지는 직접화법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록된 문서로는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번역본들에서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담화표지의 성격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맥에 맞춰 ‘이제 잘 들으시오.’라는 번역을 선택하였습니다.

4. 다니엘 6:27[28]

BHS⁵

מְשִׁיב וּמַעַל וְעֶבֶד אֲתִין וְתַמְהִין בְּשִׁמְיָא וּבְאַדְרָעָא דִּי שְׂיִיב
לְדִנְיָאֵל מְיִיד אֲרִיִּתָּא:

『개역개정』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새번역』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u>사자의 입</u> 에서 구하여 주셨다.”
『공동개정』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u>사자들</u> 로부터 살려내셨다.”
『새한글』	하나님은 구해 내 주시는 분, 건져 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u>사자들의 앞발</u> 에서부터 구해 내 주셨습니다.”

4.1. 차이점 관찰

아람어 אֲרִיָּאָה יָדָא(야드 아르야바타, ‘사자들의 손’)에 대한 한글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사자들’이 아닌 ‘사자’로, ‘손’이 아닌 ‘입’으로 번역하여 ‘사자의 입’이라 번역하였습니다. 『공동개정』은 ‘사자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는 살렸지만 יָדָא(야드)에 대한 번역은 생략하여 ‘사자들(로부터)’이라 번역하였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복수와 원문의 의미를 살려 ‘사자들의 앞발’이라 번역하여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ESV, NET, NRS, NKJ 등 대다수 영어 성경은 ‘the power of the lions’로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중 YLT가 독특하게 ‘the paw of the lions’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 중 ZB와 BB는 ‘der Gewalt der Löwen(the power of lions)’으로 번역하였고, LB는 ‘(von) den Löwen([from] the lions)’으로 『공동개정』과 마찬가지로 יָדָא(야드)를 생략하고 ‘사자들(로부터)’라 번역하였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글 성경에서 ‘손’ 대신 ‘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사자(들)의 손’보다는 ‘사자(들)의 입’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개정』과 LB는 ‘입’이나 ‘손’과 같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의미 전달이 잘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

과 ZB, BB 독일어 성경이 ‘the power of the lions’로 번역한 것은 ‘사자’와 ‘손’의 조합은 어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우선 아람어 본문에 אַרְיָאִים(아르야바타, ‘사자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사자’라는 단수보다는 ‘사자들’이라는 복수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대한 정확한 반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이라는 뜻의 פִּי אַרְיָאִים(품 아르야바타)라는 표현은 다니엘 6:22[23]에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6:27에서는 פִּי(품, ‘입’)이 아닌 יָד(야드, ‘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פִּי(품, ‘입’)과 יָד(야드, ‘손’)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므로 יָד(야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성경 아람어에서 ‘power(힘)’를 뜻하는 단어인 חֵיל(하일)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power’로 번역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의 ‘사자들의 앞발’이라는 번역은 사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살리면서도 최대한 원문을 반영한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번역, 역본 비교, 민수기 13:27, 사사기 3:22, 에스라 7:12, 다니엘 6:27.

New 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Comparison, Numbers 13:27, Judges 3:22, Ezra 7:12, Daniel 6:27.

(투고 일자: 2025년 2월 14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3월 29일)